

나흘 앞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30.4만원...전통시장 22.1% 저렴

전통시장 26만6000원·대형마트 34만2000원
 작년보다 4.0% 하락...대형마트 감소폭 더 커

추석 연휴가 나흘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30만4000원으로 작년보다 4.0%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에서 차례상 차림을 준비하는 것이 대형유통업체보다 22% 저렴했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



무등산 정상부, 57년 만 시민 품으로 무등산 정상부 상시개방 첫날인 23일 오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서석대에서 시민들이 인왕봉 전망대로 향하고 있다.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이 위치한 무등산 정상부는 1966년 군부대 주둔으로 출입이 통제됐다가 이날부터 상시개방을 시작했다.

면 추석을 한 주 앞둔 지난 20일 주요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0만4434원이다. 이는 전주보다 0.3% 소폭 상승했으나, 작년과 비교해 4.0% 하락한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전통시장이 26만6652원, 대형유통업체가 34만2215원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이 대형마트보다 22.1%(7만5563원) 저렴했다. 지난주와 비교 시 전통시장은 0.1% 하락한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0.8% 상승한 것이다. 다만 작년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2.0%, 대형마트는 5.5% 하락해 대형마트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소고기, 계란 등 축산품과 배추, 무, 시금치 등은 작년보다 저렴했지만 사과, 배 등 과일과 강정, 약과 등 가공식품은 작년보다 가격이 올랐다.

차례상 차림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고기는 공급량이 늘면서 작년보다 가격이 하락했다. 우둔살 1.8kg 기준 작년보다 전통시장은 11.2%, 대형마트는 16.0% 떨어졌다. 탕에 쓰이는 양지는 300g 기준 전통시장 10.6%, 대

형마트 7.9% 낮아졌다. 계란은 10개 기준 전통시장은 3.5%, 대형마트는 5.1% 각각 하락했다.

배추는 300g 기준 작년보다 전통시장은 18.0% 저렴하지만, 대형마트는 6.3% 비싸다. 무는 100g 기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각각 19.2%, 16.9% 하락했다. 매년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뛰는 시금치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각각 15.1%, 20.1%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반면, 사과 가격은 5개 기준 전통시장은 2.7% 올랐고, 대형마트는 19.0% 상승했다. 배 가격은 상승폭이 더 크다. 5개 기준 전통시장은 14.5%, 대형마트는 32.4% 비싸다. 사과와 배 모두 추석 수요에 비해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일조량 부족 등으로 작황이 부진, 공급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작년보다 높게 형성됐다.

약과(150g 내외)와 산자(150g 내외)는 전통시장에서 작년보다 각각 20.4%, 17.8% 올랐고, 강정(150g 내외)은 대형마트에서 75.7% 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참조기(3마리) 가격도 어획량 감소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모두 작년보다 30% 넘게 뛰었고, 쌀(2kg)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 조

절과 올해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각각 7.4%, 25.7% 상승했다.

aT는 올해 성수품 공급이 지난해 이룬 추석에 비해 원활한 상황으로,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할인행사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가 지난해 추석과 비교할 때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대형마트는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연계해 품목에 따라 최대 40% 저렴하고, 이로 인해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6.3%(2만1552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로 1인당 3만~4만원 한도로 20~3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추석 연휴 첫날까지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각종 할인 혜택을 활용하면 더욱 알뜰한 추석 차례상 차림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며칠 남지 않은 추석까지 성수품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수급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광주 교복업체 43곳 중 39개 가격담합”...시교육청, 행정제재 수위 심의

“5개월~2년 부정당 업체 등록...입찰 제한”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납품 우려”

‘담합’을 통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을 비싸게 판매한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심의가 진행된다.

심의를 통해 지역 대부분의 교복 판매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등록되면 최대 2년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2024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 공급부터 중단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5일 교복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의 교복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계약심의회위원회’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계약심의회는 변호사·교수·시교육청 직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심의회는 지난달 시교육청이 지역의 교복판매·대리점 43곳 중 39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진

행한 청문결과와 검찰·법원의 수사·재판 자료를 검토해 행정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결과에서 대부분의 교복업체는 “현재의 교복입찰 제도인 ‘최저가 2단계 경쟁’ 방식은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밖에 없다”며 담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2일 열린 재판에서 업체 대부분은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며 일부는 부인하거나 불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께 혐의를 인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선고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계약심의회는 가담 정도에 따라 5개월에서 최대 2년동안 지역의 중·고교가 시행하는 교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곧바로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반면 현재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

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행정제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심의회 대부분이 외부인으로 구성돼 있어 논의 결과를 알 수 없다”며 “행정제재가 결정되면 다음달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곧바로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교복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교복 입찰은 지역에 등록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입찰제한 처분을 받으면 당장 2024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부터 차질이 예상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교복판매업체들은 학부모의 교복가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가 2단계 교복입찰’ 방식을 악용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슬비 기자

제23회 **곡성심강**

어린이 대축제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2023. 10. 6. 금 - 10. 9. 월

곡성심강기차마을

6일

캐리와 꼬마친구들

7일

반짝반짝 달님이

8일

브레드 이발소

9일

애니메이션 OST 콘서트